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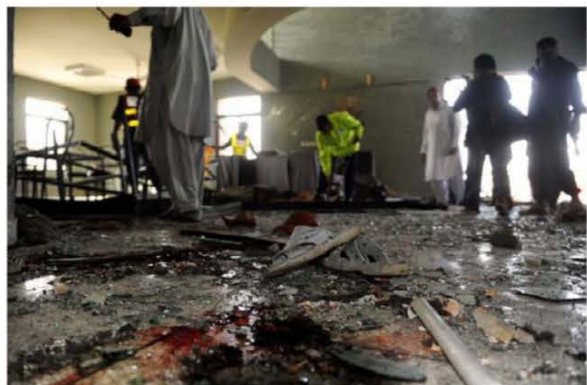
HA TAE BUM

하 태 범

PORTFOL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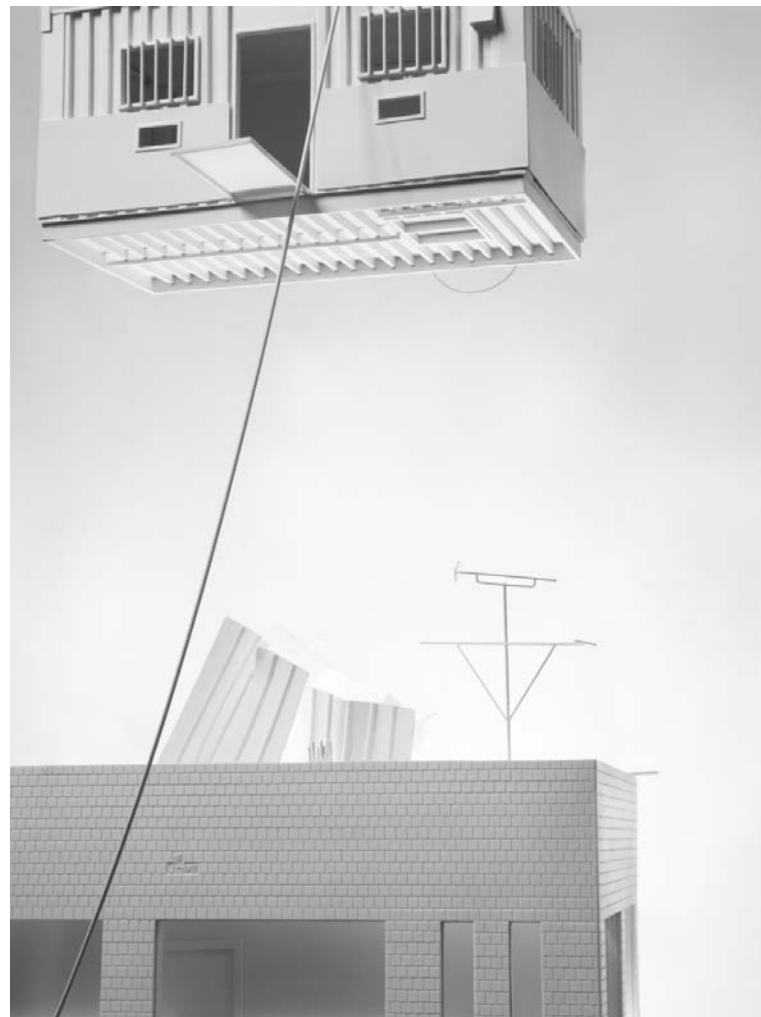
## WHITE-시리즈 사진작업



신문이나 웹에 나온 사진 자료들을 하얀 단색 모형으로 재건한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을 보도사진의 불길, 연기, 피로 물든 사람들의 '원색적인' 스펙터클이 사라지고, 대신 폐허의 하얀 조형물만 남아 그 장소의 비극적인 상황을 흰색으로 덮어 버린 채 무덤덤하게 제시한다.

파키스탄 폭탄 테러 / 120x180cm / pigmentprint & facemount / 2010

\*표지이미지 The Incident / Single Channel Video / 3min33sec / 2016



우상) 용산참사-1 / 150x112cm / pigmentprint & facemount / 2010  
 좌상) 일본 쓰나미 / 120x180cm / pigmentprint & facemount / 2012  
 좌하) 연평도 포격사건 / 128x180cm / pigmentprint & facemount / 2011



시리아 2 / 120x180cm / pigmentprint & facemount / 2016



시리아 3 / 143x200cm / pigmentprint & facemount / 2012



좌) 소녀 / 혼합재료 / 75x75x190cm / 2014

우) 피에타 / 혼합재료 / 110x110x155cm / 2014

## Playing War Games-시리즈



AK-47 자동소총 / 각 87x25x5cm / A4용지 / 2011  
 AK-74U 자동소총 / 74x25x5cm / A4용지 / 2011  
 RPG-7 로켓포 / 100x20x10cm / A4용지 / 2011

PKM 중기관총 / 120x60x50cm / A4용지 / 2011  
 60mm 박격포 / 80x80x100cm / A4용지 / 2011



Playing war games / 150x200cm 영상설치 / A4 종이, 단채널비디오 00:03:49 /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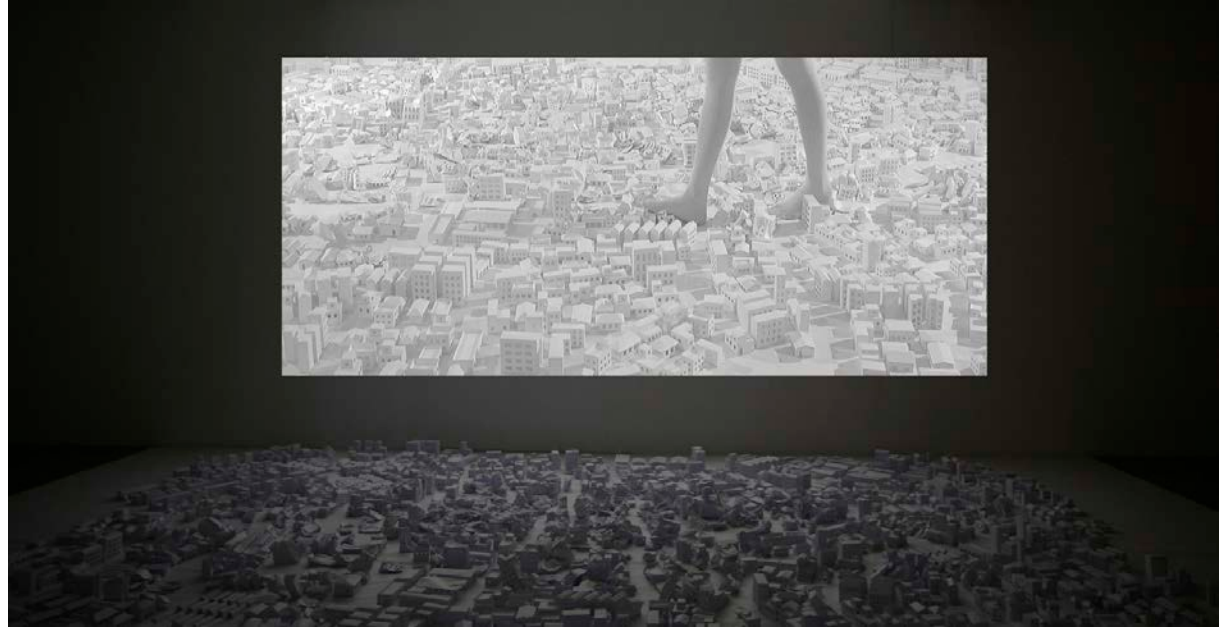


Playing war games 2 / 영상&설치 / A4 종이, 단채널비디오 00:05:34 / 2012

## WHITE-시리즈 설치작업



## Dance on the City 2



종이로 만들어진 백색 건물들이 바닥에 뽁뽁이 놓여 있고 음악이 시작함과 동시에 갑자기 뛰어든 무용수의 다리는 종이로 만들어진 건물들을 휘젓고 맘껏 밟으며 춤을 춘다.

우리들에게 노출된 장면들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무수히 반복되어 결국 지켜보는 이들에게 허구인지 실재인지 인지하는 것조차 무감각해지게 될 정도로 소비된다. 즉 중간 매체를 통해 현실을 접하게 되면서 마치 연극이나 영화를 보듯 태만한 태도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이미지를 소비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지각과 인식의 태도를 사회적인 구조 문제 안에서 마치 놀이를 하는 것과 같은 감성을 통해 드러내고 때로는 은유적으로 표현한다. 이는 그것을 관람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양한 방식으로 획득한 카타르시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지금 처한 현실이나 당면한 문제,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방식과 대응하는 방식이 고정적이거나 유일한 것이 아니며 언제나 바라보기의 다른 방식과 대안적 행동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 프로젝트-대화법



대화법 프로젝트는 일차적으로 시각 예술과 무용이라는 서로 다른 언어 감각을 전문화해 온 예술가들의 대화법 연구를 통해 우리에게 퇴화한 감각을 되살리는 제3의 소통 방식을 찾고자 한다는 목표를 내세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두 존재 간의 만남에서 발생 가능한 소통과 폭력의 형태를 관찰하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있다. 이는 소통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저울의 양쪽 날개에 위에 올려놓고 어느 쪽으로 기울는지 시험하는 일이기도 했다. 모든 프로젝트의 과정은 계속 촬영되고 녹취된다. 협업과 대화의 과정은 그 자체로 이 프로젝트에서 매우 큰 의미를 차지하는데, 이를 시나리오 작업을 거쳐 다시 각색하여 관객에게 보여주기 위한 다큐멘터리로 재촬영해 전시장에 상영한다. 5개월간의 긴 프로젝트 과정을 단시간에 전달하기 위해 선택한 다큐멘터리 제작은 실제의 기록이 아닌 연기된 상황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전달의 편이를 위함이지만, 사실을 전제로 하는 다큐멘터리가 편집자의 의도가 개입되어 왜곡되는 상황을 보여 줌으로써 미디어 소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에 대한 불가피성을 표면화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또한, 여기서 시각예술 관련자 3명과 무용수 1명이라는 상황 설정은 사실 상대적 다수인 시각 예술가들이 무용수 한 명에게 일방적으로 무용 언어에 대해 묻고, 무용수는 표현이 익숙하지 않은 말로 자신의 영역을 설명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을 유발한다. 이는 소통의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의 암시이기도 하다. 이러한 설정은 프로젝트의 '대화법'이 둘 간의 진정한 소통이 이뤄지는 이상적 대화를 목표로 삼으면서도 그것의 가능성에 대해 가지는 애매한 입장을 보여 준다.



대화법 프로젝트 (Dialogue Method)  
융복합 프로젝트(무용수와 큐레이터 시각예술가의 협업)  
영상 기록 및 공연, 책 제작  
가변설치 (공간 설치- 장소: 홍은예술창작센터) / 2013